

aT, 할랄시장 규제 대응... K-푸드 진출 돕는다

9일 'K-푸드 할랄시장 전략 세미나' 20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중동·러시아 소비동향 등 소개 기업 수출 단계별 지원 연계도

K-푸드 관련해, 국내 주무기관·업체들의 할랄시장 섭렵이 확대된다. 서아시아 국가 대상의 세미나를 개최해 소비동향을 파악하고 동남아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등 규제 강화에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9일 중동과 러시아·CIS 등 할랄 유망시장을 주제로, 'K-푸드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온라인상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aT 주관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동과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K-푸드 소비동향 ▲중동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정보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 및 관련 규정 ▲할랄인증 취득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T는 올해 3월부터 중국·미국·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국제 할랄산업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디나르 스탠다드에 따르면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 1조4340억 달러에서 2028년 2조8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



한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은 중동 바이어들이 K-푸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aT

이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기업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먼저 aT 두바이지사는 현지에서 파악한 중동지역 K-푸드 소비동향과 시장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 할랄무역마케팅센터(HIMC)의 중동 시장 전문가인 토마스 게레로 대표가 현지 유통구조와 소비 특성을 바탕으로 K-푸드 마케팅 전략과 통관·유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러시아·CIS 지역에 대해서는 aT 모스크바지사가 현지 K-푸드 소비동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공유한다. 또 러시아·CIS 할랄시장 동향과 관련 규정 등 기업이 시장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국가와 인증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소개에 나

선다.

aT는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할랄 시장에 대한 기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시장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인증, 마케팅, 물류 등 수출 단계별 지원을 연계해 기업의 신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포스터의 QR 코드를 활용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당일 aT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세미나 종료 후 녹화 영상은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한 aT 수출식품이사는 "할랄시장은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큰 동시에 국가별 소비문화와 인증·통관·유통환경이 서로 달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한 시장·

규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앞서 지난달 중순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약 200명이 참석한 해당 설명회는 동남아 주요국의 규제의 초점을 맞췄다. K-푸드의 주요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인증 의무화, 식품안전 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규제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또 인니 전문기관은 할랄인증 및 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을, 베트남 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특히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최신 제도 변화만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 기업 유의사항이 공유됐다.

특히 인구 3억대를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K-푸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해당 세션에서는 ▲인니 비관세장벽 동향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 ▲할랄인증 및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대응방안 등이 소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한남-LH 노후 공공임대주택 난방시설 교체 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난방 효율을 높여 입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한남은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으로 '부담↓ 따뜻↑ 한남-LH효율+' 브랜드를 론칭하고, 분당·광교·화성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의 노후 열교환기 고온부 보존재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간 사용으로 열손실이 컸던 열교환기 120대의 보존재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됐다. 기계실 내 불필요한 열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세대로 공급되는 열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성남시 도촌섬마을 9단지에서 입주민 대상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며 사업 효과와 동절기 효율적인 지역난방 사용법, 생활 속 저탄소 실천 수칙 등을 전파하기도 했다.

하동근 한남 사장은 "국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두 공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가스공사 오권택 수소신사업단장(오른쪽)이 지난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 석유협회(API) 안살리다 수석부사장과 수소산업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가스공사-API 수소·저탄소 에너지 글로벌 기술표준 제정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손잡고 수소 및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정과 기술교류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3일 대구 본사에서 API와 수소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PI는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및 에너지 시설의 설계·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글로벌 공신력의 기술표준 제정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소,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신기술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운영,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축적한 설계·건설·운영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표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자료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국내 수소사업 인프라의 기술 수준과 안전 관리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지속가능어워드 결선 진출

부산항만공사, 건강·안전·보안 결선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례 세계인들의 투표, 결선 심사 반영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전 세계 항만이 경쟁하는 '지속가능 어워드' 부문 결선에 올랐다.

부산항만공사는 국제항만협회(IAPH)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WPSP)에서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가 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해당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 사례다. 줄잡이 작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부산항 줄잡이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용 실습교육장을 구축하고 작업자들에게 이론·실습교육도 제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항만 안전대책에 반영돼 전국 항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해 왔다.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 ▲안전·보

건·보안 등 총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제시한다.

올해는 전 세계 항만에서 70여 개의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협회는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3개, 총 18개 프로젝트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결선에서는 세계인들의 투표가 심사에 반영된다. 지속가능어워드 투표는 국제항만협회 공식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10월2일이다. 투표 참여 후 화면을 갈무리해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소정의 경품(추첨)도 받을 수 있다. 투표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부산항만공사통계' 및 '부산항만공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내 시민 친수공간 운영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건설 골재 재활용'프로젝트로 인프라 부문 1위, 2025년에는 '재난·안전·보안 통합 시스템'으로 건강·안전·보안 부문 1위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협력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민간기술·제품 공동마케팅’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 참여

한국마사회가 협력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롯데리파크 서울 컨벤션홀에서 '민간기술·제품 공동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 설명회를 2026년 코리아컵 및 코리아스프린트 출발번호 추첨행사와 연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2개사와 말산업 협력기업 3개사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마사회는 코리아컵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경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사료, 경주로 시설, 동물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참여 기업의 면면도 다양하다. '가파'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새싹을 첨가한 혼합섬유질사료를, 'LS반도체'는 경주로 조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고효율·경량 LED 투광등을 선보였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포스트바이오'는 동물용 헬스케어 및 진단 서비스 XQ-Station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티젤바이오'는 온도 감응형 하이드로겔 기술을 이용한 수술 후 통증 완화 솔루션 ez:AP를 개발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핵심 산업·통상 인재 50여명 영입

외부서만 최대 29명 민간 전문가 채용 3년 만에 '담당급 공모직위' 재시행

산업통상부가 메가프로젝트,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핵심 산업·통상 과제를 현장에서 전담할 인재 50여명을 영입한다. 정기공채와 별개로 민간 전문가 채용, 타 부처 전입, 담당급 공모직위 제도를 총동원해 현장 실무 인력을 즉시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법무·통상·AI·홍보 등 전문 직무를 중심으로 사무관급 10명, 주무관급 4명 등 임기제 공무원 최대 1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여

기에 인사혁신처 주관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민경채) 15명(5급 6명, 7급 9명)을 더해 외부에서만 최대 29명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다.

내·외부 5~6급 공무원이 특정 핵심 업무를 2년간 전담하는 '담당급 공모직위' 제도로 3년 만에 재시행된다. 산업부는 9월 중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AX', '제조현장 AI 팩토리' 등 3개 직위에 대한 공모를 거쳐 10월 중 선발을 완료하고, 연내 2개 직위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전 부처 대상 공모에서 역량 있는 6급 공무원이 선발될 경우, 최저승진연수를 적용받지 않고 조기 승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